



박태원 교수의

불교로 보는 인생

'자동차'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불변의 알맹이가 있는가. 없다. 아무리 해집고 찾아보아도 '이것이 자동차의 실체'라고 할 그 무엇이 확정되지 않는다. 수만 가지 부품들의 복합 인연체를 편의상 '자동차'라 부를 뿐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박태원이라는 이름을 차지하는 고정 불변의 그 무엇이 발견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러나 일정한 지속적 패턴을 유지하는, 이런 저런 정신 물리적 구성 요소들의 심신 인연 복합체. 그것을 '박 아무개' '김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지칭한다. 무아의 도리, 공의 이치를 설명하는 부처님의 설법은 이런 식이다.

이름에 실체가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히면 나와 너, 내 것과 네 것으로 대조처럼 갈라진다. 소유의 애증과 집착이 나와 너의 실상을 일그러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린다. 반면 이름에서 변치 않는 알맹이를 제거해 버리면, 그 이름으로 진행되는 현상의 온전한 모습과 관계들이 눈에 들

나의 전공은 불교철학이었기에 중국철학 전공인 도올 선생이 지도 교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대학원 수업 등을 통해 그 분을 직접 겪을 수 있었기에 판단 자료가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나는 그분의 역할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본다. 한국 사회는 그 타성을 밑바탕에서부터 헤집어 버릴 필요가 있다. 기치촌 근성의 지식 사회, 합리적 이성의 건강한 검토를 원천적으로 기피하며 대중들을 우롱하는 종교 권력, 성(性)의 이름으로 과대 포장된 부실한 허위들, 동양적 정체성과 지혜들을 노골적으로 혹은 은밀히 무력화시키려는 교활한 의도들, 지성이 결핍된 동양 신비주의자들의 어설픈 자기 도취, 사상적 균형과 깊이를 상실한 여론 형성 지식층들의 문화 식민지적 편향과 무지들, 근대화 및 식민 년 과정에서 두렵게 쌓인 이 오염층을 정화하려면 특별한 역할이 필요하다. 관행을 헤집을 때의 충격과 갈등과 불편함을 애써 고려하는 '점잖은 언

도올의 헤집는 역할

어온다. 이름에 해당하는 생생 현상의 역할이 고스란히 인지된다. 이름에 따라붙는 실체의 환상을 걷어 버리면, 연기(緣起)라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진행되는 한 생명의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인지된다.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관에 비추어 매우 못마땅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그가 명성이라도 누릴 때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허위와 위선과 기만으로 여겨져 분노와 증오의 생각마저 솟구친다. 그러나 조심하라. 이런 심리 상태로는 그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어찌해야 하는가. 자신과 그의 이름에서 불변의 알맹이를 제거하라. 무아, 공의 마음으로 자신과 그의 이름을 보라. 그러면 놀랐던 모습이 보일 것이다.

또 한번 도올 선생의 동양사상 강의를 들었던 시비가 언론의 기사거리가 되었다. 어느 영문학 교수가 일간지에 도올 선생을 소인이라 질타하며 원색적인 인신 공격을 퍼부은 것이 계기였다. 필자가 고려대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도올 선생은 한 학기 전에 철학과 교수가 되어 막 국내 활동을 시작한 참이었다.

관행 깨뜨리려 하면

점잖은 언어 한계이여

행'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성을 상실한 위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도올 선생의 역할은 특별하고 의미가 깊다. 그분은 그 '헤집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 축적과 무전제의 자유로운 사색, 진지함과 용기와 적절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헤집기 위해 필요한 동·서양 다방면의 고급 지식들을 저처럼 치열한 문제 의식 아래 한 몸이 축적시킨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닌가. 그분의 학문적 견해에 대한 이견(異見)은 학문적으로 엄밀히 개진하면 되고, 인격적 포퓰리즘(愛人)은 각자에게 맡기면 된다. 느낄 만큼 느끼는 대중들이 귀를 세우는 데에는 그만한 시대적 요청이 있는 것이다. '첫소리 나는 웅성이 듣기 싫다'고까지 하면서 소인으로 매도하여 도올 선생의 특별한 역할을 무력화시킬 일은 아니다. 이름을 비위내고 역할을 보자.

울산대 철학과 교수

석가모니 止-觀 수행법 창안

참불자의 길 참선⑦-인도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떤 수행을 했을까. 그리고 인도선은 어떤 것일까. 선 수행을 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물어봤을지 모르겠다.

우선 인도의 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불교를 빼놓을 수 없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실시한 수행법은 고행주의(苦行主義)와 수정주의(修正主義)가 대표적이다.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이 전통적인 수행방법으로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고(苦)에서 해탈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결국 이 수행방법을 버린 부처님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니연선(離念)에서 목욕하고 붓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 결과부좌를 하고 정진한다. 물론 이는 요가의 수행법이었던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해 그와는 차별된 새로운 수행방법을 체득한다. 부처님께서 창안한 선정법은 본질적으로 요가의 수행법과는 엄연

한 차이가 있다. 지(止)·관(觀) 수행법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는 삼매로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상태이자 정념이 없어진 선정의 수행을 말한다. 그리고 관은 통일된 마음으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연기법을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즉 부처님의 선정법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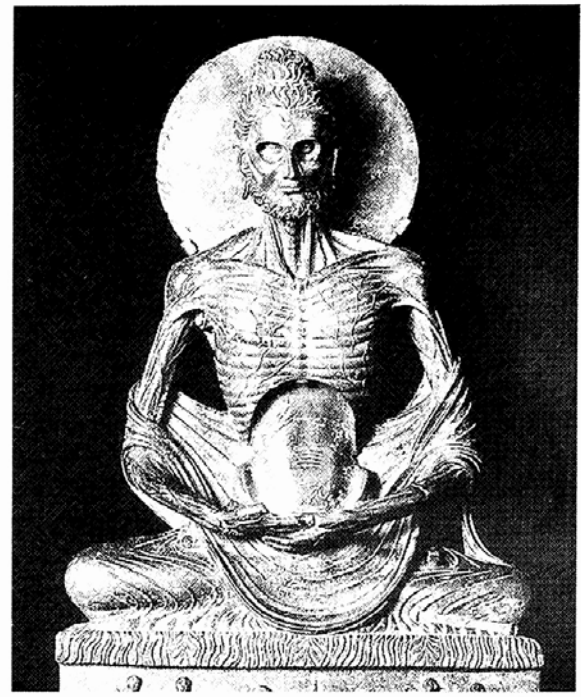
겉으로 요가와 비수苦的 원인 철저히 관찰 근원 깨닫는 점 차이

음이 조용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의 원인을 철저히 관찰하여 그 근원을 깨달았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6년 간의 고행과 수정주의의 선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인 선정과 지혜로써 12월 8일 동쪽 하늘의 새벽을 보고

연기의 도리를 깨달은 것이다.

현재 우리 불교에서는 선(禪)이나 선정(禪定)이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 이 용어는 '명상하다', '속고하다'라는 뜻이 담긴 인도의 드야나(dhyana)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다. 이 단어는 우파니샤드에서 명상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불교에서 말하는 드야나는 불교적인 명상법인 지와 관을 함께 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다.

또 경전에서도 초기 인도불교의 선을 찾아 볼 수 있다. 대부분 경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깊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염화미소에 선의 기원을 두고 있다. 한 송이의 연꽃을 들어 보인 부처님과 이를 보고 깨달음의 미소를 지은 가섭의 이심전심에서 선불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에게 자신의 자리를 반쯤 내어 주었다는 다지탑전 반분자(多子塔前 半分座),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 관 밖으로 두발을 내밀어 보였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행상(3세기경 건지라 출토).

사라쌍수하 곡시쌍부(沙羅雙樹下 顯示雙趺). 이를 삼차전심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선의 효시이자 인도 선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이심전심으로 전한 이러한 불교가 우리의 대표적 수행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선 불교인 것이

다. 선은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 인도불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선불교는 태동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선 불교는 중국선종이 이룩한 사상적 성과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김중근 기자 (garma@buddhapia.com)



'서장' 통한 선 공부 ③

증시량에 대한 답서(1)

여래의 말은 분별심 치료하는 방편



김태완 부신대 강사, 철학

이것이 바로 육조 혜능이 <단경>에서 강조한 불이법(不二法)이며, 유마 거사의 불이법문(不二法門)이며, 색즉시공(色卽是空)의 진실이다. 그러므로 중생은 본래 해탈해 있는 것이지만 해탈할 가능성을 지닌 속박된 존재가 아니다. 다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을 찾는다' '느니, '아주나뎃타가 자기 얼굴을 찾는다' '느니 하는 비유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번뇌에 싸여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여기는 것은 분별심의 작용에 의한 환상이 실상이 아니다. 분별심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지와 관념화되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중생과 부처가 있고, 업과 과보가 있어서, 삼라만상이 모두 분별되고 대립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이들은 모두 한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환상이다.

그러므로 선의 공부란 이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을 위주로 한다. 그러나 분별심이라고 하여 이 마음 밖에 따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 마음의 작용이다. 즉 분별심을 내려놓는다고 하여 내려놓을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실상은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데, 분별심이라는 환상의 병 때문에 스스로를 고통스런 중생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분별심을 내려놓는다는 것도 이미 중생과 부처, 미혹과 깨달음, 분별심과 무분별심을 나누어 놓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병을 치료한 뒤에도 여전히 옛날 그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여래가 하는 모든 말은 방편일 뿐이라고 한 것이다. 여래의 말은 진리가 아니라 환상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환상의 약일 뿐이다. 환상의 병을 환상의 약으로 치료하였으므로, 치료하고 난 뒤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 물고기가 본래부터 물 속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무엇이 달라지며, 아주나뎃타가 제 얼굴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여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러므로 병을 치료한 뒤에도 여전히 옛날 그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선이란 다만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뿐이다. 그 밖에 따로 진리를 얻는다는지, 지금의 자신과는 다른 무슨 진인(眞人)이 된다는지 한다면, 이것은 모두 이법(二法)이요 유위법(有爲法)으로서 바른 진리가 아니라 외도(外道)의 견해이다.

화엄경 대강좌

2001학년도

포교현장의 법사양성 (3년과정)

법사과정 경전연구원 신입생 모집

한정섭 법사와 함께하는 경전강좌

약찬게·법성계·세주묘엄품



정규반(50명) 3월 5일
통신반(30명) 오후 7시 개강

화엄경 제1회인 보리장회의 장면을 묘사한 세주묘엄품에서 부처님은 정각을 이룩과 동시에 비로자나불인 법신과 한몸이 되었다. 이어 수많은 보살과 호법신중들의 세존의 정각의 덕을 찬탄하다. 약찬게는 화엄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의상스님의 법성계는 화엄경 사상을 압축요약한 것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화엄경 세주묘엄품 · 약찬게 · 법성계
- 화엄경 십지품
- 화엄경 입법계품
- 화엄경 보현행원품 · 여래출현품
- 대승불교사상(불 · 보살사상)
- 보성론(여래장사상)

박종 교수

관세음보문품 대강좌



정규반(50명) 3월 6일
통신반(30명) 오후 7시 개강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구제원력과, 32방편의 보문시현으로 중생제도하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가슴에 새겨 전법활동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법화경 제17분별공덕품에서 ~ 제28보현보살권발품]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법화경 방편품
- 법화경 여래수랑품
- 법화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비교종교론
- 금강경
- 무량수경

최봉수 교수

근본불교 대강좌



정규반(30명) 3월 8일
통신반(30명) 오후 4시 개강

드러난 초기 경전군인 아함·반야·법화·화엄·경토로 이어지며, 아함경과 대승경전을 아우르는 최봉수 교수의 명쾌하고 전후내용이 일목요연한 대강좌!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근본불교 연기설
- 반야사상(금강경)
- 화엄사상(십지품)
- 법화사상
- 정토사상(무량수경)
- 근본불교 업설

송찬우 교수

불교경전 통신 대강좌



통신반(30명)

십여년동안 부처님의 주옥같은 한문원전강좌를 열여 경전의 깊은 묘리와 심심이 묘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던 송찬우 교수님의 경전통신 대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통신대강좌 A코스

- 반야심경, 금강경 · 능엄경 1,2권 · 능엄경 3,4
- 능엄경 5,6권 · 능엄경 7,8권 · 능엄경 9,10권

통신대강좌 B코스

- 반야심경, 금강경 · 유마경 · 원각경
- 육조단경 · 조론 · 대승기신론

법사양성 전문도량

동산 불교 전문연구원

본연구원 사무국 (서울 중로구 건지동 13번지) 02)732-1206~8/FAX 02)732-1207

http : www.dongsanbud.org